

“쉽사리 아물지 않는 기억...선명히 남아 현재로 소환된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광주5·18을 다룬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정치하면서도 시적인 산문이 압권이다. 수많은 주옥같은 문장들 가운데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바로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일 것이다.

기억은 그런 것이다. 어떤 기억은 쉽사리 아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히 남아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된다.

물론 누군가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가혹한 경험을 한 이에게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관에서 김홍빈, 심혜정, 정기현 작가의 전시를 연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
5·18기념재단 ‘소리없는...’ 주제
25일부터 5·18기념문화센터 전시관
김홍빈·심혜정·정기현 작가 참여

현 작가의 전시를 연다. ‘소리 없는 목소리’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은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모티브가 됐다.

“목소리는 있되 소리가 없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오랫동안 기억 속에 묻혀져 있었다는 의미일 게다. 광주와 아픔, 소설 속 주인공 동호의 아픔이 어둠 속에 침윤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소설 창작화로, 오월어머니들의 텍스트를 토대로 한 낭독화로, ‘소리 없는 목소리’는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큰 함성과 울림을 선사한다.

장민혁 5·18기념재단 교육 문화부장은 “이번 전시는 지난 2023년 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올해는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하고, 오월어머니들도 책을 읽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전시는 김홍빈, 심혜정, 정기현 작가가 참여했으며 유재현, 정현주가 공동 기획을 맡았다.



특별전 ‘소리 없는 목소리’가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실 장면과 낭독부스 내부 모습(원 안).

유재현 기획자는 “오월어머니들을 작품 낭독에 참여시킨 것은 광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5월 항쟁 당시 피맺힌 목소리를 온전히 내지 못했던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현주 기획자(포도나무갤러리 대표)는 “낭독부스를 별도 제작해 시민들과 함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그날의 윤리적 공동체 기억을 환기하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아울러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모두 12개국 언어로 번역된 ‘소년이 온다’도 비치했다”고 말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설치작품이 관객

을 맞는다.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인 ‘소년이 온다’는 5·18항쟁 당시 도청 분수대 광장에 모인 불특정 사람들을 찍은 사진 위에 블루프린트 천을 덧씌운 것이다.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타원의 빈 흔적들은 묘지조차 없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영정사진의 의미를 함의한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설치된 작은 서가가 눈에 띈다. ‘소년이 온다’ 이탈리아판 외에도 다양한 번역본을 만날 수 있으며, 한강의 작품을 함께 배치해 외국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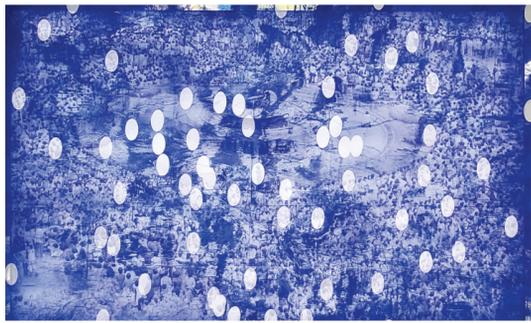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낭독부스’. ‘소년이 온다’의 각 단락을 낭독하고 녹음할 수 있게 책과 녹음시설이 갖춰져 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날의 상흔과 공동체 기억을 교감하는 취지다.

25일 오후 5시30분에 진행되는 개막식은 강애심·권지숙 배우가 제 6장 ‘꽃 핀 쪽으로’를 읽는 낭독 퍼포먼스를 펼친다.

한편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도 마련돼 있다. 오는 6월 4일 오후 4시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리는 ‘오월 이야기-사물의 기억’을 주제로 한 워크숍은 오월어머니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을 매개로 오월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참여자들은 5·18기념공원을 걸으며 ‘소년이 온다’ 제6장을 함께 읽고 전시를 관람한다. 이어 영상에 출연한 오월어머니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홍빈 작 ‘소년이 온다’ (장소특정적 설치작품).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

박정일 초대전...6월 4일까지 드영미술관

오늘의 시대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다. 어떤 이에게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려동물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정일 작가. 박 작가는 반려동물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 일상, 기억 등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박 작가의 ‘Family’전이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오는 6월 4일까지 열린다.

주제에서 보듯 작가는 반려동물을 의인화를 넘어 가족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작품 명이 ‘Family’로 동일하다.

고양이 결혼식을 그린 작품은 미소를 짓게 한다. 수컷 고양이와 암컷 고양이가 팔짱을 낀 모습은 청춘남녀의 결혼식을 빼놓았다. 각각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고양이 모습은 선남선녀의 결혼식처럼 들떠 있다.

케이ابل카를 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도 흥미롭다. 붉은색 케이ابل카에 탑승한 동물들

은 각기 다른 고양이와 개들이다. 산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호기심에 들떠 있는 친구도 있고, 무서운 나머지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친구도 있다. 친구 동물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케이ابل카를 타르는 새는 다소 지쳐 보이지만 행복한 표정이다.

김 관장은 “이번 초대전은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진행된다. 데 의미가 있다”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족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신진작가 발굴과 예술가의 창작지원,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Family’

청년예술, 마을 곳곳을 물들이다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29일 곡성 첫 공연

곡성에서 제주까지, 전라·제주 지역 곳곳이 청춘의 무대로 변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가 이달 29일 곡성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청춘마이크는 전국의 청년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일상 속에서 문화를 나누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이다. 올해 전라·제주권의 슬로건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 퍼레이드’. 마을과 광장, 시장, 공원 등 일상 공간이 자연스럽게 무대로 확장되며 지역민과 예술가의 경계를 허문다.

첫 무대는 29일 오후 5시, 곡성 옥과 사포골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싱어송라이터 송은채를 비롯해 아코디언 연주자 아코디언김(김경호), 가요금 연주자 신혜미, 성악양상블 리블링스, 제주 출신 뮤지션 후민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빛낸다.

이어서 30일에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5월 1일 순천 문성마을, 2일 광주 수완호수공원, 3일 입실 치즈테마파크와 제주 함덕해수욕장, 4일 전주 세병공원까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들이 펼쳐진다.

특히 5월 1일 열리는 순천 문성마을 무대는 ‘청춘퍼레이드X마을페스타’ 콘셉트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연 전에는 댄스스포츠 전문팀 ‘하어모댄스퀸’이 주민 대상 댄스 교실을 운영하



지난 3월 제주 서귀포 유채꽃 축제에서 청년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 (웨이브백토리 제공)

고, 주민들은 청년 예술가에게 ‘남도밥상’으로 화답하는 등 훈훈한 교류가 이뤄진다.

청춘마이크 운영사무국 최민희 PD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년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교감하며 지역 문화의 운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알코올·약물·도박...중독을 ‘걱정하는 타인’의 시선

연극 ‘컨선드 아더스’ 6월 26~29일 ACC 극장1

중독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알코올,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 이웃까지 서서히 파괴해간다.

이러한 중독 문제를 ‘걱정하는 타인’의 시선으로 표현한 연극 ‘컨선드 아더스(Concerned Others)’가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극장1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코틀랜드 극단 ‘Tortoise in a Nutshell’의 작품인 ‘컨선드 아더스’는 2023년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뒤 스코틀랜드 연극상 ‘최고의 프린지 작품’ 부문 준우승에 이어 시카고 국제 인형극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공연은 유럽에서 약물 남용률이 가장 높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중독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초승달 형태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미니어처 인형극

과 실제 중독 당사자, 가족, 의료진 등의 인터뷰 음성을 기반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무대 위 ‘걱정하는 타인’의 다양한 목소리는 중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과 자막이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한다. 공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김선옥 재단 사장은 “이번 작품은 단순히 중독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확장을 이야기한다”며 “실현적이



중독 문제를 다룬 연극 ‘컨선드 아더스’가 오는 6월 26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ACC재단 제공)

고 감각적인 무대 구성은 세대와 연령을 막론하고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 2만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 지원사업 공모...29일까지 접수

그림, 회화, 영상, 설치, 공예, 미디어아트 등...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다채로운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해 이메일 접수)

이번 공모는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진행할 광주지역 예술가를 위해 마련했으며, 전시는 오는 5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8회 운영된다.

선정된 8팀에는 회화당 198만 원의 지원금, 부대시설 이용, 홍보물 제작 등 혜택이 부여되며 전시는 10일간 제공될 예정이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1층)은 지난해 개

방형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85㎡(약 56평형) 전시 와이어 50개, 조명기기 50개 시설이 구비돼 있다.

희망자는 개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를, 팀이나 단체는 대표신청자만 예술활동증명서를 내면 된다. 최종 결과는 5월 9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노희용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공간 지원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예술인들에게는 전시 문호를 넓혀주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